

송담스님

인천 용화선원 원장



가까이서 본 큰스님

“참선은 출-재가 누구나 할수 있다”

구랍 27일 인천시 남구 주안5동에 소재한 용화선원 법보전. 스승인 전강선사의 26주기 추모제를 맞아 인사말을 하는 용화선원 원장 송담스님. 이날 용화선원에 입주의 여지없이 몰려든 스님 200여명 등 1천여 불자들이 존경을 받고 있는 선지식이지만 스승의 육성법문을 밖으로 대신한 채 법단 아래에서 서서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겸손함이 예사롭지 않다.

스님의 하심(下心)은 스승인 전강선사(1898~1975)에 대한 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송담스님은 조실 추대를 거절한 채 여전히 열반한 스승을 조실로 모시고 있다.

일반 불자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 법보 배구선원 외에 시민선방과 보살선방까지 운영하고 있는 용화선원에선 25년이 지난 오늘날도 전강 선사의 테이프 700여개의 육성 녹음 남김 법문이 매일 흘러나온다.

이는 '가고 울이 없음이 여래의 진면목, 중생의 눈엔 전강 선사께서 돌아가신 걸로 보아나 생사없는 도리를 증득한 스님은 열반상만 보인 것이기에, 전강 조실스님은 생존시와 똑같이 항시 도량에 계시며 후학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송담스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전강-송담 두 선지식의 사제지간의 정은 피와 살을 나눈 부모보다도 더 깊은 것으로 회자되고 있다. 23세 때 전남 곡성 태안사에서 깨달음을 얻고 33세의 나이로 통도사보광선원의 조실로 추대될 정도로 선공을 드날렸던 전강 선사는 6·25 한국전쟁 당시 피난을 거듭할 때도 제자의 수행을 돕기 위해 실로 눈물겨운 행적을 보였다. 행어 제자인 송담에게 해가 올 것을 격정하여 집 천장에 숨겨두고 스스로 구멍가게를 열어 제자를 도운 일화는 두고두고 사표가 되고 있다.

그러한 전강선사의 예측대로 송담스님은 오늘날 한국 선종의 선맥을 이끌어 가는 거목이 되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정흠스님이 <전강평전> (우리출판사에서 서술한 것)에서 "10년 방아쇠로 오도하지 못하면 다시 10년간 눈까지 감아버리려고 했다"는 치열한 구도와 스승의 배려에 힘입어 스님은 홀연히 생사의 대의를 깨쳤으니, 10년 묵은 수행을 깨고 진여 대도에 이르는 다음과 같은 오도송을 읊었다.

차운 가리기는 저 장천을 울며 북을 향하여 날아가는구나
무슨 일로 심년간 헛되이 힘을 낭비하였는고
달 아래 섬진대강이 흐르는구나.

黃梅山庭春雪下
寒雁向北飛
何事十年任費力
月下鐘津大江流

이 절, 저 절에서 앳다투어 나이든 스님들



◇용화선원 법보전에서 전강선사 추모제를 봉행한 후 스님과 신도들의 인사를 받으며 계단을 내려오는 송담스님(가운데).

용화선원에선 오늘도 25년전 열반한 전강선사의 육성법문 듣는다

을 조실로 추대하는 이른바 '조실 홍수시대'를 맞고 있는 이때, 조계종에서 최고의 선사중 한분으로 추앙받고 있는 송담스님은 "자격이 없다"고 겸양하며 여전히, 스승의 상징인 조실 자리를 마다하고 있다. 지금도 송담스님이 전강스님의 육성녹음 테이프를 들고 난 뒤 상당법문을 하는 것 또한 선가의 아름다움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전강 선사가 생전에 '조실제도의 미비'를 지적하면서, '조실이란 불조의 혜명을 잇는 명맥인데, 스승의 인가 없는 조실이 날로 많아져서 큰일이다'고 개탄한 사실과 맥을 같이 한다. "위승왕불(威尊王佛) 이래 스승없이 깨우침은 외도(外道)이며, 이들은 비단 초삼학자들은 눈 멀게 하고 불법을 망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도 해친다"는 게 송담스님의 선지식론이다.

용화선원의 전통(承)은 이처럼 전강선사의 유지를 받들어 조사선공을 진직하여 환구참선(幻句參禪)을 선양하는 것이다.

전강-송담스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환구참선법은 송담스님의 다음과 같은 계승에 잘 나타나 있다.

뽕족한 산봉우리에 달뜨는 것을 보고
當午更看月出
두견새 소리 속에 나귀를 먹인다(杜鵑聲裡牧將驢)
원앙새 수놓은 것 보여주어도(鴈鷺織出從教看)
수놓은 금침은 주지 못하네(不把金針渡與人)

"파수오경"의 오경은 낮 '오' (午)자 오경입니다. 달은 밤에 뜨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낮 오경에 달뜨는 것을 보느냐? 이 파수오경간월출은 볼래야 볼 수 없고, 들을래야 들을 수 없고, 만져볼래야 만져볼 수 없는 한 물건을 깨닫는 도리를 표현한 것이고, 두견새 소리 속에 나귀를 먹인다 하는 것은 내가 나를 깨닫고 그 도리에 입각해서 깨달은 뒤에 수행해 나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선은 바로 내가 나를 깨닫는 길이다. 그러나 내가 생사해탈 하고 모든 중생도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이 있다 하더라도 바른 수행방법을 알지 못하면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없다. 또 바른 길을 알았다 하더라도, 쉬지 않고 정진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성취할 수 없다는 법문이다.

송담스님은 환구참선을 "선지식으로부터 공안 하나를 받아 이문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알 수 없는 의식으로 화두를 참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당장 처음 시작할 때는 꼭 딱딱한 걸음도 나아갈래야 나아갈 수 없는 상태로 지어가되 한 걸음도 옮기지 아니 하고 바로 참나를 깨닫는 길이다.

사구(死句)참선 즉, 공안을 부처님 경전이나 조사어록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이론적으로 따지고 더듬어서 알아 들어가려고 하는 쪽은 참선과 대조되는 말이다.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⑭

圓覺經云一切衆生種種幻化
원각경은 일체중생 중중환화
皆生如來圓覺妙心猶如空花
개생여래원각묘심 유여공화
從空而有 襄相國云 血氣之屬必無有知
중공이유 배상국은 혈기지속 필유지
凡有知者 必同體 所謂眞淨妙
범유지자 필동체 소위진정명묘
虛徹靈通 卓然而獨尊者也 背之即凡
허철영통 탁연이독존자야 배지즉범
順之即聖
순지즉성

기할 수 있겠는가?
問曰修多羅中 演說百千三昧
문일수다라중 연설백천삼매
無量妙門 布網張羅 該天括地
무량묘문 포망장라 해천괄지
諸菩薩 依教奉行 至於斷證階位則途
제보살 의교봉행 지어단증계위즉수
有三賢十地 等妙二覺
유삼현십지 등묘이각
今但依握提寂寂二門 對治昏沈緣慮
금단의성성적적이문 대치혼침연려
終期究竟位者 如認一微瀦 以為窮盡
종기구경위자 여인일미구 이위공진
瀦瀦 不其惑乎
영발 불기혹호

<원각경>에는 '모든 중생들의 갖가지 허망한 모습들이 다여래의 원만히 깨달은 심오한 마음에서 생기는 것으로서, 마치 눈병 때문에 나타나는 허공 꽃이 허공에서 생겨난 것과 같다' 하였으며, 배상국은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아는 것이 있다. 아는 것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바탕이 같은 것이니, 이른바 진실하고 깨끗하고 밝고 심오하며 텅 비었으며 신명하고 통달하여

물었다. "경전 가운데 여러 가지 삼매와 한량없는 묘한 법을 연설한 것이 그물처럼 덮여 하늘과 땅을 다 둘러쌌으니, 모든 보살이 그 가르침대로 받들어 행하여 번뇌를 끊고 영발을 증득하는 지위에 오르

'없다' '있다' 자기소견 고집하니 어떻게 그들과 도를 이야기하나

홀로 높은 존재로다. 이것을 등지면 범부요 그것을 따르면 성인이다 하였다.

게 되는 삼현·십지들 다 보살 수행의 지위를 뜻함과 등각·묘각등각은 제5위, 묘각은 최고 지위인 (佛果)의 자리임이 있는데, 단지 성성(聖性)과 적적(寂寂)의 두 가지 법에 의해 혼미함과 번뇌의 생각들을 다스려 최종의 지위를 얻겠다는 것은 마치 작은 물거품을 보고 바다를 보았다는 것과 같은 것이니 잘못된 것 아닙니까?

震蓋智禪師 常謂門人曰莫驕心
운개지선사 상위문인왈만마관심
心自靈聖 此等是諸經論
심자영성 차등시제경론
及天下善知識 所留言向中微旨也
급현하선지식 소유언중미지야
但時人 自欺自滿 日用而不自信 自修耳
단시인 자기자만 일용이불자신자수이
脫或有信之者 不加決擇 隨情向背
탈혹유신지자 불가결택 수정향배
未免斷常 而堅執已見 豈可與之語道也
미연단상 이견집이견 기가여지어도야

答今時修心人 具佛性
답금시수심인 구불성성
依頓宗直指之門 發決定信解者
의돈종직지문 발결정신해자
直了自心常家 自然握握 依此而修修故
직료자심상적 직연성성 의자이거수고
雖具修修行 唯以無念爲宗 無作爲本也
수구수만행 유이무념위종 무작위본야

은게 지선사는 제자들에게 마음을 속이지 않으면 마음은 스스로 신명하고 성스럽다 하였다. 이런 말들은 여러 경론과 선지식들이 남김 말 가운데 핵심이 되는 뜻이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기 때문에 나날이 마음을 쓰면서도 믿지도 않고 두지도 않는다. 혹 믿는 이가 있어도 가려서 결정하지 못하고 감정에 따라 따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여 없다. 있다 하는 생각에 빠져 자기의 소견을 고집하니, 어떻게 그들과 도를 이야

대답했다. "현재 마음을 닦는 사람은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있어서 바로 깨달음을 가르치는 돈종(頓宗)의 문에 신해(信解)를 가진 이는, 자기 마음이 본래 고요하고 깨어있음을 알고 거기에 의해 수행하기 때문에 비록 만행을 한다 해도 무념(無念)으로 중을 삼고, 무작(無作)으로 근본을 삼는다.

김원각<시인·역경위원>

환매산 뜰에는 봄눈이 내렸는데

佛紀 2545년 (辛巳年)



이천만 불자가 하나되어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대한불교수도원
대한불교수도원거시림회

주 지 재 화
신도일동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67
TEL : (043) 256-2655 / 257-2655

대한불교 조계종
미택시

주 지 재 화
신도일동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거산리 산851-1
TEL : (031) 532-6481

대한불교 조계종
전도시

주 지 법 성
신도일동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552
TEL : (031) 595-0108

관음불교백회점

대 표 박정림
탱화 불상 법상 등 불구류 판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82-4
TEL : (063) 282-4070
FAX : (063) 231-4070

대한불교 조계종
광덕시

주 지 윤성광
신도일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23,
TEL : (031) 962-8363
FAX : (031) 963-8363

한국불교 태고종
대덕시

주 지 월 압
신도회장 윤춘화
반야회회장 서희숙
신도일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산 69-7
TEL : (02) 3159-888
FAX : (02) 3159-9774

대한불교 조계종
기도도량 통일시

주 지 최선규
신도일동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산 201
TEL : (032) 886-7529

대한불교 조계종
대지시

주 지 자 운
신도일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73-5
TEL : (031) 964-6075 / 963-9251
964-0031 (팩스겸용)

명성종합불교

대 표 권영욱
불상 탱화 등 불구류
조상옷 동자선녀 그 외 신복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1가 126-11 3/2
TEL : (051) 415-0706 FAX : (051) 415-0705
C. P : 011-878-9985

북한산 형제봉
깊고 기꺼운 절 심곡암

주 지원 경
신도일동

오시는 길 : 정릉 국민대학교 북악터널사이 북한산국립공원입구에서 도로보 20분 거리

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 산1번지 1호
TEL : (02) 914-8860 www.simgokam.org